

[경제]



이번주에는 메리츠증권 정종환 광주지점장이 KT와 GS홀소핑을 추천했다. 정 지점장은 KT가 유선망 임대사업으로 인터넷TV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며 연기금 투자확대에 따른 투자대상 가능성, 연말 배당주로도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GS홀소핑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과 홀소핑주의 최대 매출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점, 대표적인 배당주라는 점에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TV 선두 주자로

실적개선·배당주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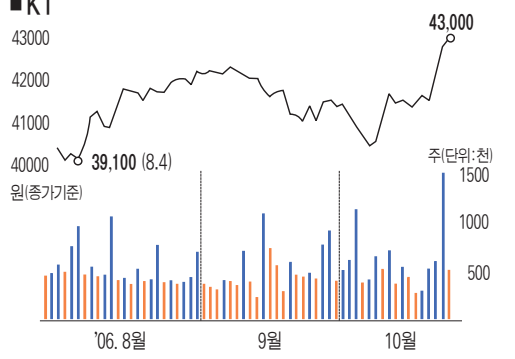
■ KT

국내 최대의 유무선통신 사업자로 전화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업별 매출구성을 보면 전화서비스가 36.5%, 메가패스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가 23%로 전화와 인터넷서비스가 양대 매출처다. 주가는 98년 12월 상장 이후 1년동안 급등했지만 성장성 정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00년부터 7년째 겨울잠을 자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시장확대로 유선전화부문의 점유율 하락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심화로 매출규모 감소가 주가 약세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두루넷을 인수한 하나로통신의 마케팅 강화와 LG와위콤의 무서운 시장확대로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신 성장동력으로 인터넷TV와 와이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막강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주가전망은 밝은 편이다. 메리츠증권은 서유럽에서 연간 6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터넷TV분야에서 KT가 선두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시가의 5%에 이르는 배당을 등으로 볼때 주가가 7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코모닝신한증권은 인터넷TV 수혜와 배당 매력, 낮은 주가수준 등에서 볼때 장기투자에 매력적이나 마케팅비 상승으로 단기 실적모멘텀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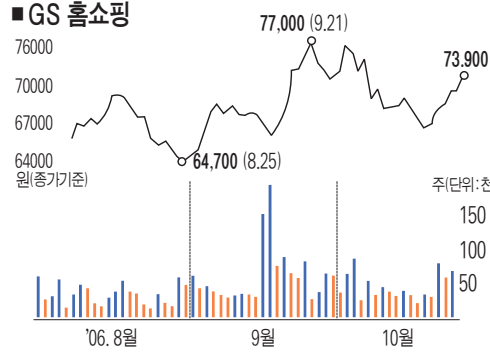
■ GS홀소핑

시장점유율 1위의 홀소핑 업체. 지난 2004년 하반기이후 1년이상 상승세를 탔던 주가는 올들어 홀소핑업계를 강타한 악재로 인해 올초 대비 50%가량 하락한 상태다.

보험 등 무형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 강화와 롯데소핑의 우리홀소핑 인수에 따른 업계 변화, 인터넷TV 등장에 따른 케이블TV의 자산가치 하락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같은 악재가 주가에 반영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7만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올들어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늘어나는 반면 수수료율이 낮은 오픈마켓 비중확대로 판매마진이 하락하고 판촉비용이 증대되면서 이익률은 하락하고 있다.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은 1천36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2억원과 96억원으로 36.8%



와 47.0%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인터넷 소핑몰의 실적 개선과 케이블TV 부문 실적을 끌어올릴 히트상품이 등장해야지만 주가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모든 악재가 현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고 계절적으로 실적 호전기를 맞아 올 4분기에는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50%를 넘는 등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생명, 카드사 1조1천억 부당출자 고객에 2,200억 손실 입혀

삼성생명이 2004년 이후 삼성카드에 대해 1조1천420억원의 부당 출자하는 바람에 삼성생명 고객들이 2천2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분법으로 평가하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시가법으로 평가하면 3천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해 계약자들에게 대한 배당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 출자액은 1조1천420억원(지분율 35.06%)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금융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삼성카드 출자액의 장부가액이 8천998억원이라고 신고해 지금까지 모두 2천422억원의 평가손을 입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식 금융원 보험감독국 경영지도팀장은 삼성카드 출자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주주와 계약자 자금이 별도계정으로 구분되지 않아 출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이 자산의 12분의 1에 불과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삼성카드에 지원된 출자액 1조1천420억원 중 1조600억원이 계약자 몫"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풍요로운 노후 생활자금 연간 5,594만원 필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삼성생명은 29일 노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노후자금을 소개했다.

삼성생명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월평균 가계수지를 인용해 기본 생활비로 연간 2천722만원을 가정했다.

여기에다 부부가 해외여행을 하고 골프도 하는 등 노후를 여유있게 즐기 위한 생활비로 2천872만원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유지비 600만원(50만원×12개월), 여행비 348만원(해외여행 2명 1회), 건강검진비 100만원(50만원×2명), 경조사와 각종 모임비 480만원(10만원×월 4회×12개월), 가사 도우미 비용 480만원(5만원×월 8회×12개월), 골프 그린피 864만(18만원×월 2회×2명×12개월)을 잡았다.

직장에서 은퇴 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려면 기본생활비를 포함한 연간 5천594만원이 들고 20년 동안 11억1천88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대신하고 골프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후생활만 한다면 연간 3천504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추구하는 노후 생활 수준에 따라 생활비는 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내년 7월 평균 등비법정단위 사용 과태료 부과 기업, 생산비 부담 '고민되네'

소비자들도 혼란 예상

산업자원부가 내년 7월부터 인치(inch), 평(坪), 근(斤) 등 비법정단위 도량형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후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이상 전통적으로 통용해 온 도량형 표기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소비자의 혼란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전자 업계의 경우 당장 TV 크기 표시가 문제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모든 국가의 판매점에서 TV 크기가 인치로 표기되고 있는데 한국 업체 제품만 인치 표기를 억제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cm로 표기할 경우 마케팅과 광고활동에 혼선

을 줄 수 있고 홍보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컨의 경우 냉방 능력을 표기하는 기본단위는 W/kW이며, 가정용 에어컨은 냉방 가능 면적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평량'을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에어컨 제품 카탈로그나 설명서 등에는 평량과 냉방능력(kW)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정부의 계약량 단위 변경 방침에 따라 냉방 면적에 대한 표기는 m로 바뀌 표기해야 할 상황이다.

건설, 부동산 업계도 주택의 면적을 설명할 때 전통적으로 써 온 평 대신 m를 써야 해 평 단위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평 단위에 익숙해 있어 주택 광고물을 제작할 때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쓸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타이어의 경우 규격을 표시할 때 통상 휠의 크기인 립 지름을 표시할 때 '인치' 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목포 대주 피오레 분양 인기

대주건설이 지난 27일과 28일 목포 옥암지구와 순천 용당동에서 각각 832세대, 1천55세대 등 1천900여세대의 '피오레'아파트 분양에 나서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가진 가운데 주말 매출간 1만7천여명이 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대성황을 이뤘다. 대주건설은 이번 목포·순천 분양에서 리무진 홍보와 갤러리 개관, 사물놀이 한마당 등 각종 이벤트로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목포 하림의 옥암지구'피오레' 분양 첫날 모델하우스를 찾은 인파.

/목포=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유가 내년 다시 오를 가능성"

현대경제연구... 수급 불균형·중동 정세 불안 탓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유가가 내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29일 '국제유가 하락 지속될 것인가' 보고서에서 "장기적 수급 불균형,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중동 정세 불안 등 유가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유가가 두바이 기준 배럴당 85달러에 이르러 환율과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이 사실상 지난 80년대초 2차 오일 쇼크 당시와 비슷해져 3차 쇼크

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경우 세계 경제가 성장률 둔화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적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원유 수입량 등을 토대로 경상수지가 84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매장량 추정치를 고려할 때 석유 수요가 현재 추세에

로 매년 1.5%씩 늘어날 경우 7~15년 뒤엔 더 이상 공급이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된다.

더구나 OPEC은 최근 유가가 하락하자 감산을 결정, 이미 하루 생산량을 100만배럴 정도 줄였고 60달러 이하 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세계통화기금(IMF) 추정 내년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평균 성장률이 7%에 달해 석유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란 핵문제 등으로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도 내년 유가 상승 전망의 근거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원·엔 환율 하락에 수출중단 등 對日수출기업 어려움 가중

원·엔 환율의 하락으로 대일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원·엔 환율 하락에 따라 대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원·엔 환율하락에 따른 대일 수출업체 애로 '조사보고서'를 27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엔 환율 하락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품류와 농수산물 등은 이미 수출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율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대일 수출중단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수출중단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종이컵 파란기 및 부품물 일본에 수출하는 A사는 금년 5월 이후 환율하락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결국 종이컵 파란기 및 부품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다.

또 농산물 수출업체인 L무역의 경우 대일 김치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약 72% 급감했다.

/연합뉴스

내년 경상·자본수지 '동반적자'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 대비책 필요

금융연 보고서

내년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동반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29일 '경상수지 적자만큼 불안한 자본수지 적자'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는 향후 달러 약세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자본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직접투자 수지와 포트폴리오 투자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타투자 수지의 순유입 급증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의 대량 선물판매 매도에 따른 은행들의 해외 단기차입금 급증 등이 기타투자 수지 흑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증가는 환율할만 한하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전혀 증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정광속*	프라스틱 도금액 분석 및 도금공정 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55-6081
동원건설*	웹디자인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0/31	062-606-5553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11-649-4009
㈜웅진씽크빅	광주 시내 초등학교 특기적성 컴퓨터 강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456-2143
㈜한진기공	기계설계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4년	2200~2400	10/31	011-649-9111
㈜서영브라이스톤	반도체영업/영업관리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2-3218-1627
㈜피노이엔디	시각디자인(경력)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02	062-383-1370
대서무역*	수출입 관련 서류작성(무역업관련)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2	062-224-1365
㈜담양온천	[담양리조트]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2	061-380-5114
엘카코리아(크리니크)	엘카코리아(크리니크)매장 컨설턴트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3	02-3440-2726
㈜햇시스	기술영업(본사/광주영업소책임자급)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03	031-495-4381
코리아나 광주동구영업소	코리아나 광주동구 영업소 교육강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3	062-525-1601
㈜베리텍	정규직 사원모집- 해외영업 및 국내 영업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03	062-945-4595
㈜이시스코리아	품질관리 주부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03	062-365-99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로도복권 (제20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3 12 14 35 40 45	0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58,347,125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8,744,761	23
3 5개 숫자 일치	1,534,856	1,180
4 4개 숫자 일치	62,837	57,646
5 3개 숫자 일치	5,000	985,516

팝콘복권 (제2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5조 685667
2	5억	5조 685666
		5조 685668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04280
5	1만	각조 306
6	2천	각조 11
		각조 90
7	1천	각조 6
		각조 5

근화건설, 남악신도시 '베아채' 분양

목포지역 '토바이'업체인 근화건설이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베아채'아파트를 분양한다.

'베아채'는 오는 2008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탐상형 25층 302세대와 관상형 20층 560세대 등 총 862세대가 전담도청 맞은편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평당 528만원선이다.

남악신도시는 '3무'(담장, 전신주, 광고물) 도시로 17개 초·중·고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무안국제공항과 KTX, 서해안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이 좋다.

단지내에는 산책로를 비롯 분수대, 수목공원 등이 조성되며, 모델하우스는 목포시 하담에 있다. 문의 061-287-7878.

/목포=이상선기자 ssllee@